사무직 여성 90년 여름 통권 1호(창간호)

<목소리>

여자라는 이유로 불합격

저는 89년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고시에 합격한 뒤 의사면허를 취득한 여자의사입니다. 전라북도에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 4군데 있는데 한 병원은 다른 학교 병원이고 또 한 군데는 후기병원이므로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실제로 저희 학교 병원과 O병원밖에 없습니다. 저희 학년 동기 여학생은 23명이고 각 병원에서 원하는 여자의사 수는 2~3명 정도였습니다. 이 당시 O병원 모집요강을 보면 응시자격은 의사면허 소지자, 혹은 의과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신교 세례교인, 모집인원은 ㅇㅇ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남녀 구별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합격 여부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안의 수뇌들끼리만 올해는 여자 ㅇ명, 남자 ㅇㅇ명을 뽑자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저는 두 해에 걸쳐 같은 병원 인턴 시험을 시도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들보다 약 7점이나 높았음에도 불합격 되었습니다(합격 여부는 0.1이나 0.01 차이로 결정됨).

의사는 전문직이므로 남·녀 성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실력만이 요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O병원을 세운 의사도 마틴 잉골드라는 여자의사였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O병원의 처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몇 가지 사실은:

첫째,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책임은 국가, 사회, 사업주가 져야 되므로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여성을 취업과정에서부터 차별해 왔던 것인데 이런 자본주의 논리가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병원에까지도 깊숙이 파고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성차별로 인해 실력을 무시한 처사는 수련 받는 의사 수준을 전체적으로 낮추게 만들고 나아가 양질의 의료 수혜 기회를 절감시켰으므로 국민의 건강권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셋째, 다수의 전문의를 길러내는 수련방식을 탈피하고 일차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양산하는 수련병원을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병원뿐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 수련병원이 수련의사를 뽑는 과정에서 학연, 성차별, 뒷거래, 금품거래가 판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넷째,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인 "사업자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만 되어 있으므로 법 조항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과 철저한 시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성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를 어겼을 경우 범칙금 250만원은 너무 가벼운 벌칙이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그 제도나 구조에 자신도 모르게 길들여집니다. 저는 남들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구조에 '문제가 있다', 감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여자라는 정체감을 일깨우는 사건이었기에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당한 사회를 제 후배나 제가 낳을 딸자식에게 대물림할 수는 없습니다. 그네들이 뭔가를 알았을 때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면 제 세대에 고통을 당하며 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나은 사회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왜 이런 불평등한 사회를 여자 선배들은 묵묵히 받아들였으며 부당하다는 항의 한 마디 못했는지 그들이 원망스러울 때가 종종 있으니까요.

전북 익산군 웅포면 손효진 드림